

코로나19 상황 속 맞벌이 가구의 일·가정 양립 실태와 요구¹⁾

조숙인 부연구위원

2020년 6월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시기에 초등학교 2학년 이하(10세 미만)자녀를 둔 맞벌이 1,050가구를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휴가/휴직제도, 유연근무제, 육아 서비스 이용과 요구사항을 조사하였다. 전체적으로 모의 휴직/휴가제도와 유연근무제 이용 비율이 부보다 높았으며 맞벌이 상태를 지속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조부모의 지원으로 나타났다. 자녀 돌봄 공백이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는 시간은 17~18시였다. 자녀가 어릴수록 조부모를 포함한 개별 육아 서비스에 대한 의존이 높았고, 자녀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교육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 반수 이상이 자녀를 직접 돌볼 수 있도록 하는 시간 지원을 희망하였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연구 결과를 통해 맞벌이 가구의 일·가정 양립 지원 방안으로 맞벌이 부모가 자녀를 직접 돌볼 수 있도록 돕는 가족 친화적 환경 마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근무제 활성화, 자녀 연령 맞춤 육아 지원 강화, 맞벌이 부모의 공동양육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였다.

1. 서론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6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중 맞벌이 가구의 비율이 해마다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5년 6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맞벌이 가구의 비중이 38.1%이었던 것에 비해 2019년에는 44.6%로 증가하였고, 이러한 추세는 7-12세, 13-17세 자녀를 둔 맞벌이

이 가구와 비교할 때 증가 폭이 더 가파르게 나타나 최근 자녀 양육과 일을 병행하며 살아가는 맞벌이 부모가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

영유아 맞벌이 가구의 지속적 증가와 더불어 워라벨(work-life balance) 추구의 연장선에서 근무 환경과 관련 정책 등이 점차 맞벌이 가구의 일·가정 양립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와 모 모두 2018년에 비해 2019년에 평균적으로 근

1) 본고는 육아정책연구소 2020년 기본 과제인 [맞벌이 가구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 방안 연구]를 바탕으로 작성됨.

2)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자료.

http://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Search.do?idx_cd=3037&stts_cd=303702&freq=Y, 2020. 3. 9. 인출;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bSeq=&aSeq=383260&pageNo=1&rowNum=10&navCount=10&urrPg=&searchInfo=srch&sTarget=title&sTxt=%EB%A7%9E%EB%B2%8C%EC%9D%B4, 2020. 9. 14. 인출.

로하는 시간이 41.3시간에서 40.6시간으로 약 1시간가량 줄어들어 가족 또는 개인의 삶을 위한 시간이 증가했다. 하지만 여전히 자녀 연령이 낮을수록 맞벌이 모가 적은 시간 근무하면서 자녀를 돌보는 경향이 있어 맞벌이 모와 부 간에 공정한 자녀 돌봄 분배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다.³⁾

맞벌이 가구의 일·가정 양립은 2020년 코로나19의 확산과 장기화로 인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국가에서 재택근무가 가능한 업종에서는 최대한 재택근무를 하도록 권고하였고, 어린이집/유치원, 학교 휴원/휴교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가정에 자녀돌봄휴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맞벌이 부모에게 코로나19는 일·가정 양립을 어렵게 하는 주된 요인이 되기도 하였으나, 동시에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다양한 의미가 있다.

본고에서는 맞벌이 가구의 일·가정 양립 상황을 이해하고자 첫째로 자녀를 직접 돌보기 위해 맞벌이 부모가 사용하는 각종 휴가/휴직제도, 유연근무제 등의 이용 실태를 살펴보았다. 들

째, 맞벌이 가구에서 이용하는 자녀 육아 서비스와 자녀 돌봄 공백 발생 시간 등을 자녀 연령별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셋째, 맞벌이 가구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요구를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추후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제안하였다. 본 연구 결과의 해석 시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고려해야 함을 미리 밝히고자 한다.

2. 연구 대상 및 방법

2020년 6월,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시기에 막내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 이하(10세 미만)인 맞벌이 1,050가구를 대상으로 설문문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영아 맞벌이 가구는 전체의 30.4%(319가구), 유아 맞벌이 가구는 40.5%(425가구),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구는 29.1%(306가구)였다. 가구 내 평균 자녀수는 1.8명, 월 가구소득은 평균적으로 약 668만원 선이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맞벌이 모와 부의 직장 관련 주요 개인 특성은 <표 1>에 정리하였다.

설문은 웹조사 형식으로 일주일간 진행되었

<표 1> 설문조사 맞벌이 가구의 부모의 직장 관련 개인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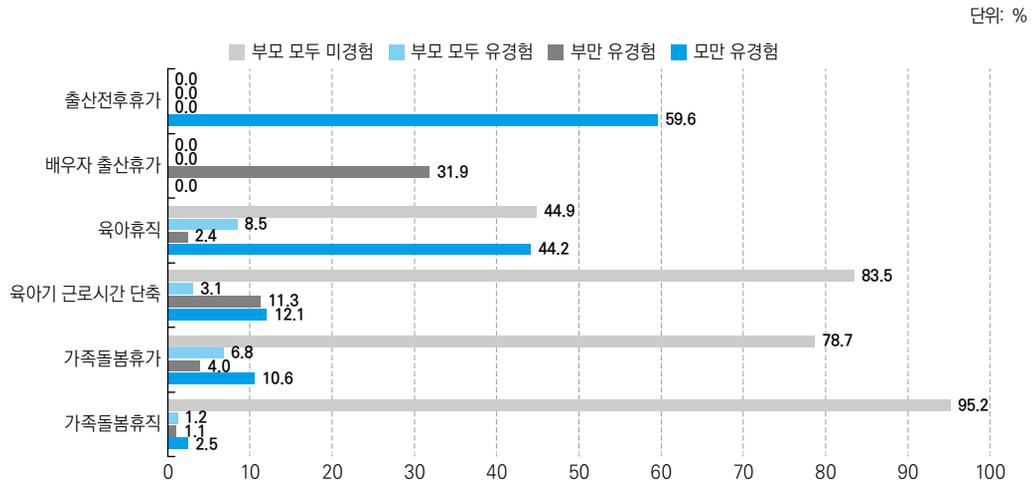
변수	구분	부		모	
		100.0(1,050)		100.0(1,05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2.3(130)		8.6(90)	
	대학 졸업	73.1(767)		76.8(806)	
	대학원 졸업 이상	14.6(153)		14.7(154)	
종사상 지위	상용 근로자	81.7(858)		75.0(787)	
	임시 근로자	2.6(27)		13.6(142)	
	그 외	15.7(165)		11.5(120)	

<표계속>

3) 통계청 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2020. 6. 23.). 2019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 현황 통계청 보도자료.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bSeq=&aSeq=383260&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rch&sTarget=title&sTxt=%EB%A7%9E%EB%B2%8C%EC%9D%B4, 2020. 9. 14. 인출. p.12.

〈표 1〉 설문조사 맞벌이 가구의 부모의 직장 관련 개인 특성

변수	구분	부		모	
		100.0(1,050)		100.0(1,050)	
직장 유형	공공기관, 공기업	15.5(163)		24.2(254)	
	대기업	20.7(218)		8.5(89)	
	중소기업	61.5(646)		62.4(655)	
	기타	2.2(23)		4.9(52)	
직장 규모	5인 미만	16.2(170)		20.6(216)	
	5인-30인 미만	21.9(230)		29.2(306)	
	30인-300인 미만	32.4(340)		30.4(319)	
	300인 이상	29.5(310)		19.8(208)	
근로시간(1주일)	평균/표준편차	42.7시간 / 13.6		33.5시간 / 13.7	
근속연수	평균/표준편차	7.7년 / 5.3		5.7년 / 5.2	



으며, 자녀 돌봄 관련 휴가/휴직제도, 유연근무제, 육아 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과 더불어 맞벌이 가구의 육아 지원 요구 등을 조사하였다.

자녀를 직접 돌보기 위해 필요한 시간 지원 제도인 휴가/휴직제도와 유연근무제도 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3. 맞벌이 가구의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이용

가. 휴가/휴직제도

자녀 출산과 관계된 휴가인 출산전후휴가의 이용률은 59.6%, 배우자 출산휴가의 이용률은

31.9%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모든 휴가/휴직 제도에서 어머니의 이용 비율이 아버지의 이용 비율보다 월등히 높은 것이 눈에 띈다. 맞벌이 가구에서 가장 이용률이 낮은 제도는 가족돌봄 휴직(95.2%)이며, 어머니,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이용하는 비율(45.1%)이 가장 높은 제도는 육아휴직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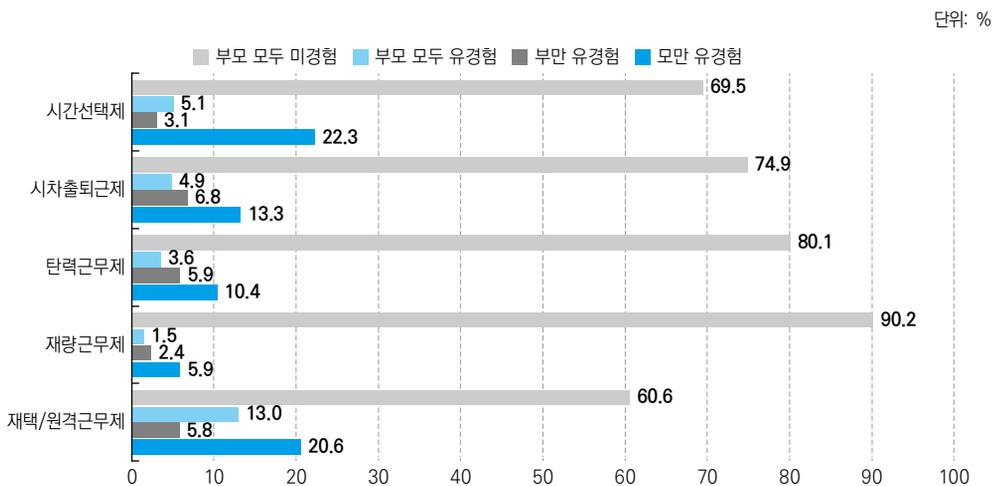
아버지의 육아휴직과 가족돌봄휴가의 이용 비율은 약 10%로 다른 제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2020년부터 시행된 가족돌봄휴가는 아버지만 이용했다는 비율이 전체의 4%에 이르러 휴가/휴직제도 중 가장 높게 보고되었는데, 이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기관에 자녀를 보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자녀 돌봄에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하는 상황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나. 유연근무제도

휴가/휴직제도와 마찬가지로 유연근무제도 이용에서 아버지보다는 어머니들의 이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용 경험이 전체적으로 가장 높은 유연근무제도는 근로 장소 유연성을 제공하는 재택/원격근무제로 나타났다. 특히 재택/원격근무제의 경우 어머니와 아버지가 모두 제도를 사용한 경험이 13%로 다른 유연근무제도들과 비교해볼 때 가장 높게 보고되었다. 이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재택근무를 권고한 기업들이 많았던 상황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유추된다.

유연근무제 유경험 가구를 대상으로 코로나 19 발생 이전부터 유연근무제를 이용하였는지를 조사한 결과, 50.3%가 코로나19로 인해 유연근무제를 처음 이용하게 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코로나19의 확산 및 장기화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유연근무제 사용을 급격히 촉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유연근무제를 사용하여 자녀 돌봄 시간을 확보한 경우는 사용자의 68.1%로 나타났으며, 평균적으로 3.1시간(sd=2.1)의 돌봄 시간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2] 유연근무제 이용 경험 비율 (N=1,0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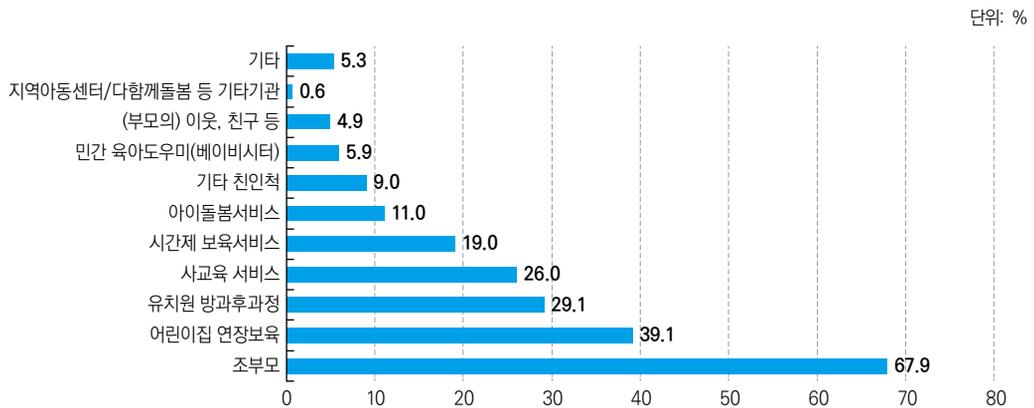
4. 맞벌이 가구의 육아 서비스 이용

맞벌이 가구에서 자녀 돌봄을 위해 주로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와 자녀 돌봄 공백 상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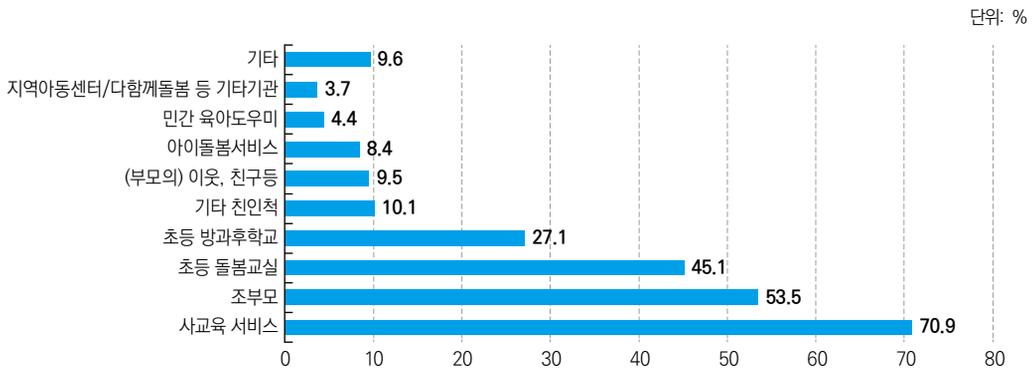
가. 이용 서비스

맞벌이 부부는 대체적으로 근무시간 중 자녀 돌봄에 대해 조부모에게 가장 많이 의존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부모의 근무시간 중 자녀를

돌보는 사람/기관의 종류는 자녀의 연령에 따라 양상이 달리 나타났는데, 영유아 맞벌이 가구에서 부모의 근무시간에 자녀를 주로 돌보는 비중이 가장 높은 사람은 조부모(영유아 전체 67.9%, 영아 72.7%, 유아 54.0%)인 반면, 초등 저학년 맞벌이 가구의 경우 조부모(53.5%) 보다 사교육 서비스(70.9%)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영유아 맞벌이 가구에서는 조부모와 더불어 기관 연계 돌봄 서비스인 어린이집 연장보육과 유치원 방과후과정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던 반면, 초등저학년은 사교육과 조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고 학



[그림 3] [영유아] 근무시간에 자녀를 돌보는 사람/기관 - 복수응답 (n=744)



[그림 4] [초등] 근무시간에 자녀를 돌보는 사람/기관 - 복수응답 (n=3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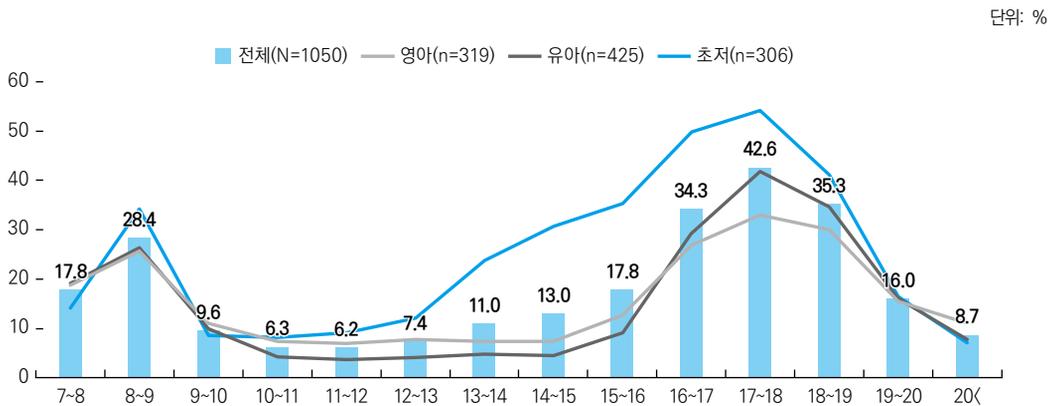
교 연계 돌봄 서비스인 초등돌봄교실과 초등 방과후학교 이용 비율이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 돌봄 공백

부모의 직장 때문에 자녀 돌봄에 공백이 발생하는지, 발생한다면 어느 시간대에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지 질문한 결과, 전체 맞벌이 가구 중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29.9%로 나타났다.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비율이 높게 보고되었다(영유아 가구=41.1%, 유아 가구=32.4%, 초등 저학년 가구=14.9%). 자녀 연령이 어릴수록 부모가 육아휴직을 쓰고 직접 돌보거나 조부모에게 전적

으로 맡기는 경우가 많아 돌봄 공백이 발생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이해된다.

돌봄 공백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시간대는 17-18시이며, 17-18시 전후(16-17시, 18-19시)로 돌봄 공백에 대한 어려움이 이어졌다. 초등 저학년의 경우 다른 연령대보다 돌봄 공백 발생 시기가 더 빨리 나타나는데, 초등 저학년 자녀가 12시경 학교를 마치고 돌봄이 필요한 상황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아침에 돌봄 공백이 가장 높은 시간대는 8-9시이며, 16-19시 사이의 돌봄 공백 비율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아서 아침 돌봄 공백보다는 오후 돌봄 공백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 5] 자녀 돌봄 공백이 있는 시간대 - 복수응답

[표 3] 자녀 돌봄 공백이 있는 시간대 -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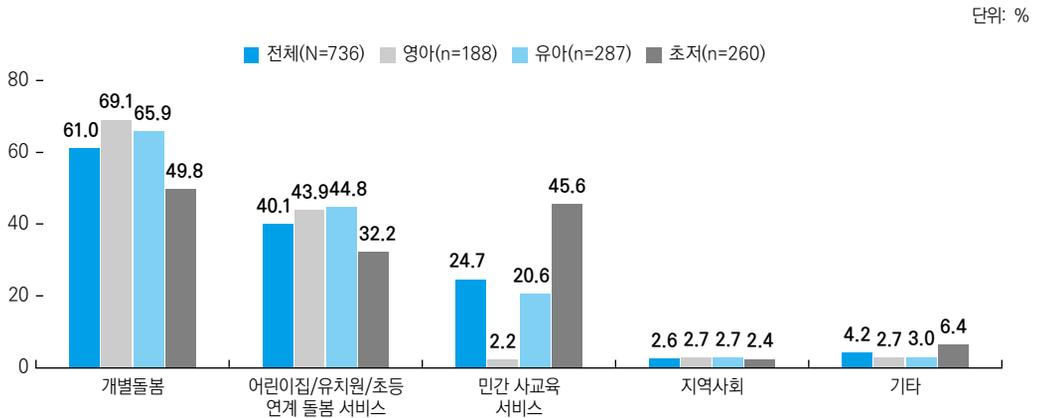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13시	14시	15시	16시	17시	18시	19시	20시	돌봄 공백 없음	돌봄 공백 없음 (수)
	-8시	-9시	-10시	-11시	-12시	-13시	-14시	-15시	-16시	-17시	-18시	-19시	-20시 이후			
전체	17.8	28.4	9.6	6.3	6.2	7.4	11.0	13.0	17.8	34.3	42.6	35.3	16.0	8.7	29.9	(1,050)
영아	18.8	25.7	10.7	7.4	6.8	7.8	7.1	7.4	12.6	27.1	32.7	30.4	15.4	11.2	41.1	(319)
유아	19.1	26.4	9.5	4.3	3.8	4.1	4.7	4.5	9.1	28.7	41.7	34.8	16.2	7.9	32.4	(425)
초저	14.9	33.9	8.8	7.8	8.8	11.8	23.7	30.4	35.2	49.5	54.2	41.0	16.2	7.1	14.9	(306)

돌봄 공백이 발생할 때 이용하는 육아 서비스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개별 돌봄(조부모, 친인척, 육아도우미 등)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연령대에서 그 비율이 가장 높았다. 개별 돌봄을 제외하고 이용하는 서비스를 자녀 연령별로 비교하면, 영아와 유아는 어린이집/유치원 연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나 초등 저학년은 사교육에 의존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보고되었다.

5. 맞벌이 가구의 지원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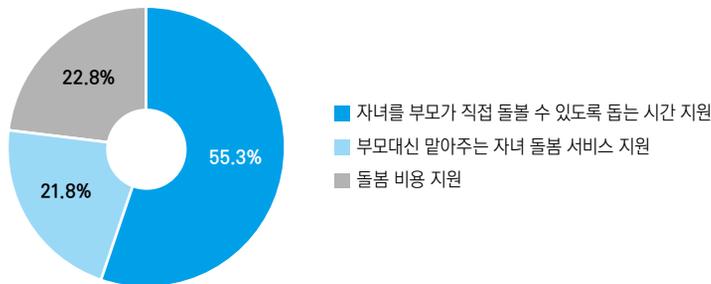
가. 코로나19 상황 속 부모 직접 돌봄 선호

맞벌이 가구에서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가장 선호하는 지원 방식은 '자녀를 부모가 직접 돌볼 수 있도록 돕는 시간 지원'으로 전체의 55.3%가 이에 해당하였다. '돌봄 비용 지원'과 '부모 대신 자녀를 맡아주는 자녀 돌봄 서비스 지원'에 대한 요구는 각각 22.8%, 21.8%로 자녀 직접 돌봄을 위한 시간 지원 요구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그림 6] 자녀 돌봄 공백 시 이용하는 육아 서비스 - 복수응답

단위: %



[그림 7]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가장 희망하는 지원 방식 (N=1,050)

이는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자녀의 감염 위험을 줄이고자 노력하는 부모들의 노력을 반영하는 요구로 해석될 수 있다. 실제 코로나19로 인해 자녀의 보육·교육 기관 또는 학교가 휴원/휴교한 동안 부모가 직접 돌봄 비율과 부모의 돌봄을 이용한 비율(비율의 합=10)은 6.2 대 3.8로 부모 직접 돌봄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고, 모와 부 모두 연차휴가를 이용, 무급휴직/일시휴직, 재택근무/원격근무 이용 등으로 직접 자녀를 돌보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였다. 결국 코로나19의 확산이 자녀 돌봄 책임을 가정으로 돌려주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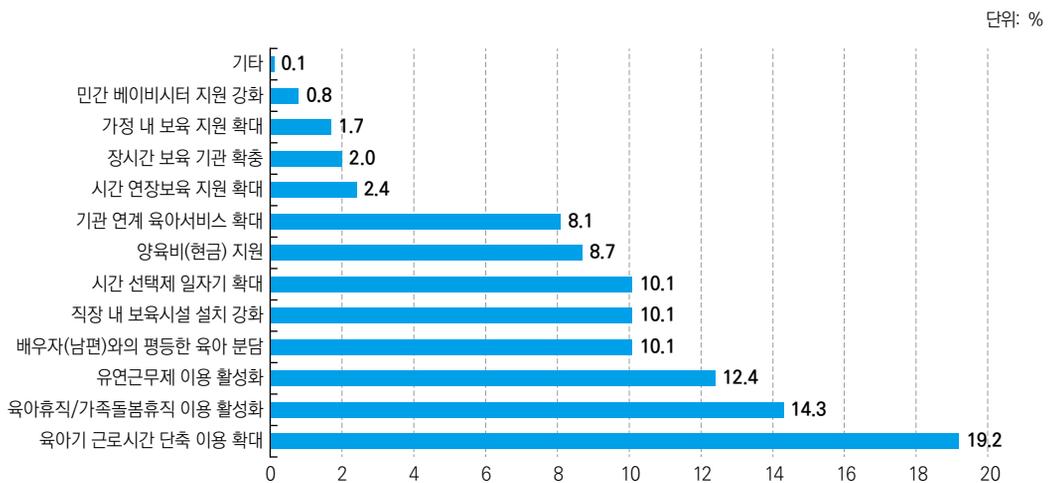
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선호

맞벌이 가구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19.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뒤이어 ‘육아휴직/가족돌봄휴직 이용 활성화’, ‘유연근무제 이용 활성화’가 각기 14.3%, 12.4%로 자녀를 부

모가 직접 돌보기 위해 이용하는 제도를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눈여겨 볼 점은 근로시간 일부를 단축하거나 근무 시간과 장소를 유연하게 사용하는 제도에 대한 요구가 높다는 점이다.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경력단절, 복귀 시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나 유연근무제의 이용은 경력단절이 발생하지 않고 일상을 지키면서 맞벌이 가구 일·가정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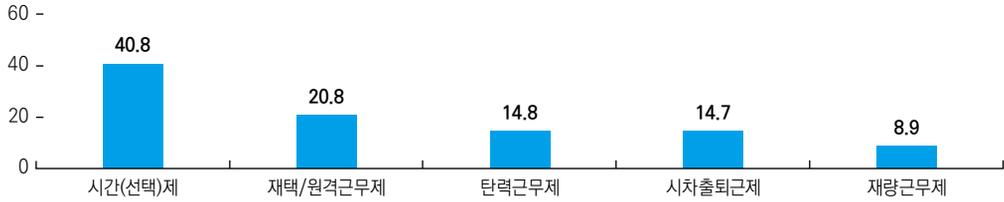
다. 유연근무제 관련 요구

유연근무제 중에서 자녀 돌봄 공백 해소에 가장 도움이 되는 제도가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시간(선택)제가 40.8%로 가장 높았으며 뒤이어 재택/원격근무제가 20.8%로 나타났다.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선택)제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은 실제로 자녀 돌봄을 위한 시간 확보가 확실하게 보장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맞벌이 가구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자녀 돌봄을



[그림 8]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 (N=1,050)

단위: %



[그림 9] 돌봄 공백 해소에 가장 도움이 되는 유연근무제도 (N=1,050)

원하는 근로자들에게 시간(선택)제와 같은 다양한 근무 형태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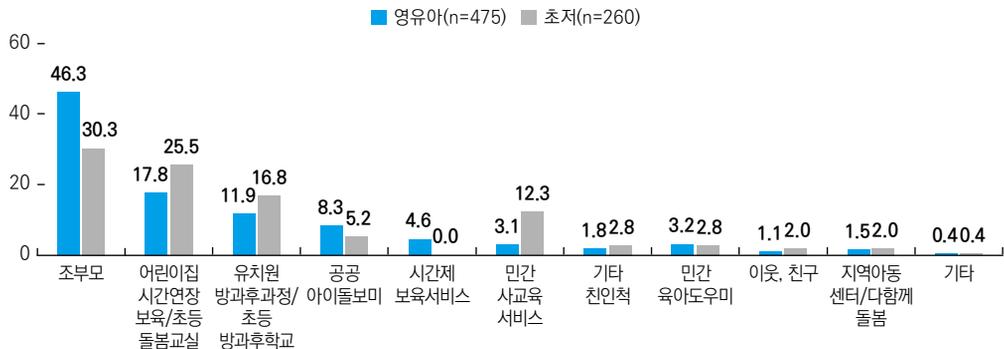
코로나19 시기에 재택/원격근무제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은 자녀가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할 때 곁에 있으면서 업무를 보고 감염병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재택/원격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업무 성과나 효율이 보장된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도 일·가정 양립을 위해 재택/원격근무제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서비스의 종류를 조사한 결과, 조부모에게 아이를 맡기고 싶다고 보고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특히 영유아 맞벌이 가구의 조부모 선호가 46.3%로 눈에 띄게 높았다. 기관/학교 연계 돌봄 서비스 이용에 대한 수요는 영유아, 초등 저학년 맞벌이 가구에서 모두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초등 저학년 돌봄 공백 발생 시 민간 사교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45.6%로 높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하고 싶은 서비스에서는 12.3%만이 이에 해당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우선적으로 선호하는 서비스(예: 조부모, 학교 연계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사교육을 돌봄 공백 해소로 이용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사교육 이용 시 감염 부

라. 육아 서비스 관련 요구

돌봄 공백이 발생할 때 이용하고 싶은 육아

단위: %



[그림 10] 자녀 돌봄 공백 시 이용하고 싶은 육아 서비스

답이 높아진 점도 사교육에 대한 선호도가 낮은 이유가 될 수 있다.

6. 제언

본 연구에서는 막내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 이하(10세 미만)인 맞벌이 1,050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돌봄을 위한 휴가/휴직제도, 유연근무제, 자녀 육아 서비스 이용 실태와 요구에 대해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어머니의 휴직/휴가, 유연근무제 이용 비율이 아버지의 이용 비율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아버지 이용이 높은 제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최근 이용이 활성화된 가족돌봄휴가와 재택/원격근무제로 나타났다. 맞벌이 가구에서 맞벌이 상태에 지속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조부모의 지원이었다. 자녀 돌봄 공백이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는 시간은 전 연령 공통적으로 17-18시이며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이용하는 육아 서비스에서 자녀 연령대별 차이가 두드러졌다. 자녀 연령이 어릴수록 조부모를 포함한 개별 육아 서비스에 대한 의존이 높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교육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 마지막으로 맞벌이 가구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 반수 이상이 자녀를 직접 돌볼 수 있도록 하는 시간 지원을 희망하였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맞벌이 부모가 원하는 경우 자녀를 직접 돌볼 수 있도록 돕는 지지적인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코로나19 시기를 겪으면서 돌봄의 사회화에서 맞벌이 부모가 자녀를 직접 돌보는 방향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감염병으로 인해 기관과 학교가 장기간 휴원/휴교되는 상황으로 맞벌이 부모가 자녀 돌봄 공백 극복을 위해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러한 재난 상황을 통해 맞벌이 부모가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를 전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이 사실이다. 이를 경험삼아 또 다른 종류의 재난이 발생하여 부모 직접 돌봄이 중요한 상황이 발생할 때 적용 가능한 시스템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맞벌이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지하는 가족 친화적인 조직 문화와 사회 분위기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맞벌이 가구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 유연근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본 연구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 비율이 낮지만 이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았던 결과는 앞으로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안해 준다. 직장 생활을 유지하면서 하루 1~2시간의 육아시간을 얻거나, 근로시간과 장소를 유연하게 사용하는 제도 이용을 활성화하는 것은 근로자의 경력단절과 복귀 시 불이익에 대한 우려를 줄이고, 고용주의 대체인력을 고용 부담 경감, 근로자의 업무 효율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를 계기로 적극적으로 활성화된 재택근무를 코로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가능한 직종부터 재택근무와 재량근무를 결합한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제를 적용하여 자녀 돌봄과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한다.

셋째, 맞벌이 가구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자녀 연령 맞춤 육아 지원이 필요하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자녀 돌봄에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데, 특히 유치원, 초등학교의 원격 수업과 변화한 교육 환경 때문에 맞벌이 부모의

부담이 가중되었다.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초등 저학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사교육 이용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맞물려 돌봄 공백 문제가 더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초등돌봄교실과 초등방과후학교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영유아의 조부모 의존도는 대인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코로나19 기간 동안 더욱 강력하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크다.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를 위한 지원 또한 고려될 필요가 있으며, 안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의 서비스 질을 제고할 때 맞벌이 가구의 자녀 돌봄 부담이 근본적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맞벌이 부모가 공동양육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해나가야 한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여전히 맞벌이 어머니들의 자녀 돌봄 부담이 아버지에게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가족돌봄휴가의 아버지 이용 비율이 다른 제도에 비해 높게 나타난 점 등을 통해 재난 상황 속 아버지의 자녀 돌봄을 위한 노력을 찾아볼 수 있었다. 맞벌이 부모의 건강한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부부가 서로의 근로 상황을 고려하여 상호 합의에 따른 효과적인 자녀 돌봄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소통의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